



소독기 한 분야에 집중_ '한보에스' 박영자 대표

정신일도 하사불성(精神一到 何事不成). 정신을 한곳에 쏟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다 이룰 수 있다는 주자의 말이다. 소독기 한 분야에 집중, 자체개발한 소독기술로 소독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한보에스(www.hanboshop.co.kr). 자외선 살균 기술로 세균을 99.9% 없애주는 칫솔소독기를 필두로 소독기 시장에서 남다른 집념과 노력으로 빛나고 있는 한보에스의 박영자 대표를 이메일로 만나본다.

Q. 소독기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

1991년부터 소독기 유통업을 해왔다. 당시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기존소독기의 품질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. 고객에게 늘 죄송스러운 마음에 직접 제조를 해야겠다고 각오하고 본격적으로 소독기 기술개발에 뛰어들었다. 현재는 전국 학교 및 공공시설 위주로 다양한 소독기를 공급중이다.



Q. 직원들에게 감동을 받은적이 있다면

스승의 날에 출근을 하니 책상위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. 평소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고 활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곤 했던 한 여직원이 준비했더라. 생일도 아닌 스승의 날에 꽃바구니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동되었고,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직원이 특별해 보였다. 동시에 이런 직원에게 앞으로 모범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야 한다는 자극도 느꼈다.

Q. 사업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얻는가

국내외 관련분야 전시회와 온·오프라인의 교육을 적극 활용한다. 또한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. 무엇보다 위생소독기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 해왔기에 기존 국내시장의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.

Q.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

잃은 것은 없다. 얻은 것은 너무 많다. 사업하며 만난 폭넓은 좋은 인맥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. 또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넓혀갈 수 있어 행복한 시간들이다. 무엇보다 나도 국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 곧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.

Q. 지난 9년부터 대구에서 쪽 사업을 해왔다. 대구지역의 사업 환경은 어떠한가

오랜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물론 대구에서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도 많지만 소규모 영세기업들은 대부분 힘든 상황을 호소한다. 비유하자면 살갓을 파고드는 아픔이라고 할 정도다.

Q.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

지방의 중소벤처로서 중소기업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밀착과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. 경영상의 애로를 인지하고 많은 정책적 지원이 따라줬으면 한다.

Q. 지방에서 벤처를 경영 한다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

한보에스는 지역사회가 주요대상은 아니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. 그러나 지방은 원자재의 신속한 수급과 기술, 전국유통을 위한 물류에서 어려움이 많다.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전문 실무경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에서 너무나 소외 되어있다. 하지만 대구는 내가 성장하여 사업하는 곳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

Q. 2008년 한보에스의 사업계획과 각오를 말해달라

2007년은 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생산기반을 다지는데 힘써왔다. 새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 홍보 마케팅으로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 구강위생보건차원의 이닦기 운동과 칫솔소독기 보급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 HACCP 관련 소독시스템 제품의 조달등록을 통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, 식품가공회사에 적극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.



한보에스의 다인용 칫솔 소독기 '덴티케어'

기쁨의 순간을 묻자 일상이 대체로 기쁨의 연속이라, 순간은 적절치 않다는 박 대표. 어려운 일을 성취해가는 과정도 기쁨이라고 말한다. 노사연의 '만남'을 좋아하고 오디오북으로 독서를 즐긴다는 박 대표는 좋지 않은 일을 빨리 마음에서 버려버리라는 삶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. 비록 바라보며 주고받는 언어가 아닌 e-mail을 통해 만났지만, 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다. 바로 한 분야에 집중하고,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삶이 얼마나 보람있는 것인지들.